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局 (營業) (編輯) 二三五·二三四·八八

# 初年度豫算案의全貌 歲出二百八十三億圓

## 赤字百億·要求額大幅削減

大韓民國政府의 初年度豫算案은 企劃處豫算局에서 歲入百八十四億四千三百四十九萬七千二百圓에 對한 各部處의 歲出總要求額五百七十四億二千七百十二萬二千九百七十八圓을 査定中에 있었는데 지난五日 이를二百八十三億四千四百二十五萬八千六百圓으로 大幅削減하여 國務會議에 上程하였다

國務會議에서는 이를 連日審議를 續開하고 있는데 治安狀態를 考慮하여 內務部豫算要求額은 總要求額의 五分之一에 該當하는 百二十一億餘圓인데 査定額은 九十一億으로 되어있다 今般 四二八一年度下半期豫算案은 歲入의 二分之一에 該當하는 約百億의 赤字補塡을 免치못하게 되었으며 [illegible]

▲歲入總額 ▲歲出總額 ▲赤字補塡 (單位百圓)

| 各部處別 | 要求額 | 査定額 |
|---|---|---|
| ▲大統領室 | [illegible] | [illegible] |
| ▲國會 | [illegible] | [illegible] |
| ▲大法院 | [illegible] | [illegible] |
| ▲國務總理室 | [illegible] | [illegible] |
| ▲審計院 | [illegible] | [illegible] |
| ▲考試委員會 | [illegible] | [illegible] |
| ▲監察委員會 | [illegible] | [illegible] |
| ▲總務處 | [illegible] | [illegible] |
| ▲公報處 | [illegible] | [illegible] |
| ▲法制處 | [illegible] | [illegible] |
| ▲企劃處 | [illegible] | [illegible] |
| ▲內務部 | [illegible] | [illegible] |
| ▲外務部 | [illegible] | [illegible] |
| ▲國防部 | [illegible] | [illegible] |
| ▲財務部 | [illegible] | [illegible] |
| ▲法務部 | [illegible] | [illegible] |
| ▲文敎部 | [illegible] | [illegible] |
| ▲農林部 | [illegible] | [illegible] |
| ▲商工部 | [illegible] | [illegible] |
| ▲社會部 | [illegible] | [illegible] |
| ▲交通部 | [illegible] | [illegible] |
| ▲遞信部 | [illegible] | [illegible] |
| ▲臨時管財局 | [illegible] | [illegible] |
| ▲外資總局 | [illegible] | [illegible] |
| ▲反民法特別調査委員會 | [illegible] | [illegible] |
| 總計 | [illegible] | [illegible] |

# 美援助에一依

## 張大使記者團初會見

【워싱톤八日發AP合同】 張勉博士는 七日美國에 새로 韓國大使로 赴任한 後 最初로 記者會見席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illegible] 美國의 援助와 經濟援助가 [illegible]

# 美國務長官마氏辭任

## 後任엔「애치슨」氏

### 對外政策無變動을트氏言明

【워싱톤八日發AP合同】「트루만」美大統領은 七日現國務長官「마샬」將軍은 健康上理由로 一月卄日附로 辭任하고 國務長官後任에는 前國務次官이었든「딘·애치슨」氏가 就任하리라고 發表하였다 [illegible]

### 애치슨氏略歷

【워싱톤八日發AFP合同】美新國務長官「딘·애치슨」氏의 略歷은 다음과 같다 一八九三年四月十一日 [illegible]

# 和平提議第三國依賴?

## 國府首腦는抗戰繼續主張

【南京八日發AP合同】七日夕刊紙의 報道에 依하면 國民政府中央執行委員會는 [illegible]

### 社會政策實行 西歐側은歡迎

### 「트」大統領敎書各國反響

【런던八日發AP合同】 [illegible]

# 北大西洋條約今月完成

## 北歐三國最高會의結果注目

【런던八日發UP고려】 [illegible]

# 中共軍天津市內突入

## 國府和平提議에不應을示唆

【南京八日發AP合同】七日中共側消息에 依하면 天津市內로 [illegible]

### 劉馭萬氏 九日午前入京

八日午後三時金浦空港에 到着豫定이던 劉馭萬中國大使는 九日午前七時四十五分 空路로 入京하게 되었다

### 張前長官謝電 美國省서回答

# 臺灣을防壘로

## 陳誠氏長官就任談

【南京八日發AP合同】 [illegible]

### 佛「드」將軍 執權은豪言

### 美國來會計年度豫算 四百十九億弗要求?

# 聖地恒久平和를目標

## 猶政府와國聯當局間會談開催

### 白崇禧氏單獨和平說

### 張群氏漢口向發注目

### 亞洲會議參席 比「로무로」氏

### 인調委美代表歸國

### 亞洲人民은 反和行動計劃

# 農地改革의展望 (中)

農地局長 姜辰國

[illegible]

### 南北統一邁進

### 民聯金宣傳局長談

### 世界征服計策

### 트氏敎書蘇紙

# 戊子日誌 (3)

[illegible]

### 政界動靜

### 人事消息

[illegible]

## 社說

### 豫算國會를 앞두고

[illegible]

韓龍杓 內科醫院 서울市樂園洞161 醫學博士 韓龍杓

◎9日부터→12日까지四日間 유니버-살社作 크리스마스休暇 따아나·다-빙孃主演
◎13日부터→14日까지二日間 폭스社作 엉터리鬪牛師 오리버·허-디·스탄·로-렐主演
◎二十키로發電機로 自電完備 絕對安心하시고보시압
朝鮮劇場

高級洋菓子 祝賀用은特別製造 永信號 서울市忠武路一街五二 電本九八七番

皮膚·泌尿·性病科 吳元錫醫院 서울市安國洞네거리 電話光(3)二一三二番

浴室自專完備 金鶴旅館

乘用車賣渡 朝鮮自動車興業社 電本(2)七四四六番

梅毒 神快藥 우도丸 皮膚病(헤르파스)及麻疾、痔疾、連珠 藥局

本社廣告部直通 電本(2)四六九三

徽章·마크 原型美術工業社

# 幽靈人口摘發되면 班全體配給停止
## 自進取消를 市서 慫慂

十일부터 十六일까지 一주일동안 서울시의 주최로 시내의 「양곡소비 절약강조주간」을 실시하야 쌀을 절약운동을 전개할 것은 기보한 바이어니와 특히 주간중 十일부터 三일간 시내전역에 걸쳐 [illegible]

## 各種技術大學 文敎部로 移管

## 警務局初代局長 金炳琓氏로 內定

## 湖南被害各學校復舊 九億圓의 豫算請求
文敎部서

## 朴氏의 旅行券 取消키로 決定

## 30件에 百萬圓 稀世의 女詐欺꾼

## 地下道를 뚫고 倉庫藥品竊盜

## 結婚을미끼로衒盜行脚 앙큼한女子드디어被逮

## 首都廳事件遂結審 二年懲役求刑
趙炳契氏出頭證言이 極注目

## 趙氏證言要旨

## 文化 美國通信
### [illegible] (7)
金載元

## UN團歡迎할 準備委員會部署決定

## 叛亂關係有罪判決者 再審의 門戶를 開放

## 한글專用指導者 養成講習會開催

## 國防部發表

## 80餘叛徒와 交戰
長城에서 六時間戰果多大

## 寶城方面서 叛徒百廿名逮捕

## 中央廳守衛가 도적놈앞잡이

## 限地醫들講習

## 오늘의 放送

## 卅萬學徒護國隊 二月上旬頃에 結成

## 左翼系女性 30餘名檢擧

「永登浦支局」 영등포서사찰계에서는 지난七일 영등포일대에 활동을 개시하여 흑석동 상도동 신길동 영등포동 도림동 방면을 [illegible] 노동계열 여성단체인 [illegible] 순정(洪淳貞)의 三십여명 [illegible]

## 文敎部藝術委員會設置

## 産業復興懇談會 永登浦에서 開催

---

### 재미있는 이야기
### 갓난 애기가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아주 옛날 아일란드 라는 나라 푸른물 가운데 조고만 마을이 있었읍니다. 때마침 온 나라는 지독한 흉년과 몹쓸 유행병으로 거칠대로 거칠었읍니다

마을네 밭에는 감자가 말라 비틀어지고 외양간 안 암소가 한마리 없이 굶어 죽고 말았읍니다. 아일란드의 푸른 들은 어둔 슬픔에 싸이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이마을에는 이상한일이 생기었읍니다.

먹을것을 얻지 못해 굶주린 어머니는 바짝 말라 붙은 젖가슴에 울고 보채는 아기들만 안고 문간에 맥이 없이 앉아 있을 때입니다. 어디서인지 이상한 암소 한마리가 이마을로 조용 조용이 걸어 나타났읍니다.

붉은 옥같고 얼은 황금처럼 빛났읍니다. 그리고 잔뜩 불은 젖통에서 젖줄을것는 대로 모든 젖이 넘쳐 흐르고있지 않겠읍니까.

하도 정신없이 절망에 빠진 어머니들은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어쩔줄을 몰라 머엉하니 바라다 보고만 있었읍니다. 그러나 갓난애기들은 그암소를보고 고사리같은 손을 벌리고 웃었읍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살기롭고 소리높았던지 고만 그바람에 온 세계의 갓난 애기들은 모조리 웃어 버렸읍니다.

어옥고 암소가 집앞에 와 서자 어머니들은 젖을 얻을려고 암소에게로 다가들 왔읍니다. 암소는 줌직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보고도 가만히 서있었읍니다. 그래 어머니들은 한때 엉키어 어린애기들에게 배불리 젖을 얻어 먹였읍니다. 어린애기들이 잔뜩 먹은것은 짜 내었것만 그래도

암소의 젖은 여전히 쏘다져 내왔읍니다. 이번엔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모다 배불러 먹었읍니다. 그래도 암소의 젖은 한없이 방양 짜면수 있었읍니다.

아마 하누님이 보내신게죠? 마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마워하였읍니다. 그런데 이암소는 저녁때가 되자 잔뜻이 없었다가 다시 이튿날 아홉에는 이마을 또 나타나고 여전이 온마을 사람들에게 젖을 주었읍니다

이리하여 이조고만 마을은 굶주림을 면할수있었고 어린 애기들은 날로 튼튼해져서 아일란드의 어느지방보다 풍요한곳이 되었읍니다. 그런 뒤에도 이 암소는 여전히 줄기차게 이마을사람들에게 젖을내어주었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이 소는 그대로 이 마을에 있을 것같았읍니다. 그러나 하로는 그암소를 노하게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읍니다.

어디나를 물론하고 제가 남보담 잘났다는 것을 보이고싶어하는 허영심을 갖인 사람이 있는법입니다. 이 아일란드에도 역시 그런 여자가 있었읍니다. 조금 형편이 회고 편해지자 그 여자는 부쩍 허영심이 많아진것입니다.

하루는 그마을의 여편네들이 모이어 암소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은 암만 짜도 말르지 않게다는 말이 나왔읍니다. 그때 한여편네는 그젖을 전부 담을만한 그릇은 없을것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러자 그 허영심 많은 여자가 벌떡 일어서며 우리집에는 그것으로 채울수있는 큰 그릇이 있다고 나섰읍니다.

그말을 들은 마을에 여편네들은 코웃음을 웃었읍니다.

그런데 그여편네는 자기 집으로 가더니 양철통하나를 끄내어가지고 나와 암소가 풀을 먹는 들판으로 갔읍니다.

마을여편네들은 무슨짓을 하나하고 딸아 갔읍니다. 암소 앞에 다달으자 그여편네는 양철통을 놓고 젖을 짜기 시작하였읍니다.

따슨한 아름다운 젖이 통으로 쏘다졌읍니다. 그러나 통은 차울라오지 않았읍니다. 그럴수밖에. 그 통은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던것이었읍니다. 통밑으로 새어 쏘다지는 우유는 어느덧 시내물처럼 들판으로 흘러나갔읍니다. 그것을 본 마을여편네들은 소스면서 저이가 젖소니 우유를 고만 짜라고 하였건만 그허영심많은 여편네는 죽기를 기를쓰고 젖을 짜기를 계속 하였읍니다. 이어리석은 여편네는 정말이 암소의 젖을 다 짜내일 작정이었읍니다. 마을내 우유는 암소의 가장사로 바다처럼 되었읍니다.

그때에서야 이 암소는 여편네의 마음을 알았읍니다. 그러자 암소는 머리를 번쩍 치든어 큰소리를 질르고 먼저왔던 산속으로 다라나 버렸읍니다. 그 암소가 번개같이 지나갈때 갓난애기들은 뒤에서 손을 벌리고 울었읍니다. 그 울음 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온세계의 애기들도 덩다라 울었읍니다. 하지만 갓난애기 외에는 아무도 그 울음 소리를 듣은 이가 없었고 또 갓난애기는 말할줄을 몰르기때문에 무얼로 울었는지 한사람도 아는이가 없었읍니다.

(외국동화에서)

☆돌이는 말슴☆ 앞으로 일요일 마다 여러분 어린이차지가 있게 되었읍니다.

### 동화 (中)
## 꼬마 토끼
이영철 지음

《에 꼬마야 내 아주 아주 맛있는 과자를 사줄 게 어디 바른 대로 말해 봐라》

《정말 야 옥로끼가 주었어!》

《에 내 많이 많이 다섯 여섯 사줄게 바른 대로 말해 봐라 옥로끼가 아니 몰 때 가만히 집어 왔지?》

《오응》

《그래 몰래 집었니?》

《오응》

《어디서?》

《옥로끼네 뒤들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서 몰래 집었구나?》

《오응》

《요놈 그런데 왜 아까는 주었다고 속였니?》

하고 아빠 로끼는 매채를 들었습니다 엄마 로끼도 눈을 흘기며

《조놈이 요새 미쳤나? 도무지 안 그러더니 연일 그 따위 못된 짓을 한담 말야 너 남의 것 잡자코 훔쳐 먹거나 집어 오면 그게 도둑놈인 줄 몰라? 그런 것이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으면 엄마 아빠 보고 먹고 싶다든지 할 거지 응? 그러면 사줄 만한 것이면 사줄 거 아니냐?》

하고 엄마 로끼는 알아 듣도록 말했습니다

《안나 저놈 오늘은랑 혼을 좀 내주어야 해 얘 꼬마야 잘못하면 매 맞는 것 너무 알지?》

하고 아빠 로끼는 매채를 들더니 꼬마 로끼의 궁둥이를 딱! 하고 한 대 때렸습니다

꼬마 로끼는 아품을 참지 못해 엉엉 울면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빌었습니다

《요놈아 어쩌자고 남의 물건을 훔쳐먹고 도둑질해 가지고 하니?》

아빠 로끼는 눈을 무섭게 떠서 성이 난 채 해 보이며 을러 대었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신 안 그래요》

하고 꼬마 로끼는 파르르 떨면서 빌었습니다

《그럼 남의 것 몰래 훔쳐 먹거나 집어 오는 건 나쁜 일이지》

《오응》

《그럼 옥로끼네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오자》

꼬마 로끼는 울면서 울면서 엄마 아빠 로끼에게 끌려 아랫 동네 옥로끼네 집으로 갔습니다

꼬마 로끼의 언니 첫째나 완자하는 바람에 우루루 모여 들어 구경을 하던 동네 새끼 로끼들 역시 종종 꼬마 로끼만 못지 않게 남의 물건을 집었었는 지라 이 일이 어쩌나 되나 하고 마음을 조이면서 엄마 아빠 꼬마 로끼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옥로끼네 집 앞에까지 와서는 꼬마 로끼는 앞마당에 펄썩 주저 앉으며 들어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질을 쳤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를 청하는 게 아니라 요놈이!》

하고 아빠 로끼는 또 매채를 들었습니다 매를 맞고 꼬마 로끼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울어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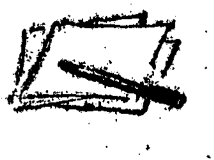
### 동요
## 널 뛰는 누나
남대우 지음

빨간 댕기가 팔랑팔랑
앞주 고름이 너울너울
널 뛰는 누나야
나비처럼 날아라

★ ★

노랑 저고리 오르락
파랑 치마는 내리락
널 뛰는 누나야
하늘만큼 올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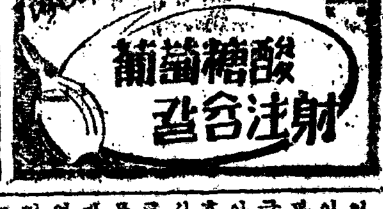
---



短篇小說
## 눈보래 (7)
朴榮濬 作
金龍煥 畫

「[illegible]」 [illegible]

---


賀正

金華工業社 代表者 林昌泳

汶山

坡州警察署 職員一同

汶山公立農業中學校 校長 李鍾宰
汶山公立農業中學校後援會 後援會長 鄭元燮

坡州郡臨津面 面長 鄭元燮 外 職員一同

坡州郡廳職員一同

泉峴公立國民學校 敎職員一同 同後援會

坡州警察署 州內支署

交河公立國民學校 敎職員一同 同後援會

坡州警察署 泉峴支署

大韓靑年團 坡州郡團部 團長 元龍得 團員一同

坡州警察署 炭縣支署

坡州郡醫師會

州內面事務所 職員一同

朝鮮運輸株式會社 汶山出張所 所長 張錫圭 外 從業員一同

坡平面事務所 職員一同

新生醫院 醫師 金淵德 電話 三四番

泉峴面事務所 職員一同

汶山酒造株式會社

汶山公立國民學校 校長 柳時爵 後援會長 朴忠緖

坡州郡飮食店營業組合 組合長 李壽泰 外 組合員一同

泉峴面 新院里 禹鍾河

坡州警察署 坡平支署

汶山邑 中央土地行政處 汶山區署 職員一同

汶山驛 驛長 曹瑋承 外 驛員一同

炭縣面事務所 職員一同

月籠面事務所 職員一同

臨津水利組合 理事 柳龍根

泉峴面食糧配給所

西面汶山出張所

州內面坡州里 共榮社鍮器工場

延安

延白郡廳 郡守 洪正錫 外 職員一同

延安警察署 署長 金鍾煥 外 職員一同

延安邑 邑長 裵榮建 外 職員一同

延白郡農會 會長 金春源 外 職員一同

延白米穀協會 會長 表[illegible] 理事 閔亨植

延白郡[illegible]組合 組合長 [illegible] 外 職員一同

延白郡[illegible]組合 組合長 宋[illegible] 理事 李英宰 外 理事一同

延白稅務署

延白酒造組合

延白水利組合 組合長 鄭燦先 理事 尹光洙

大韓食糧公社 延白分社 分社長 白昌[illegible] 外 職員一同

京畿道醫師會 延白郡支部

朝興銀行 延安支店 支店長 李貞常 外 職員一同

延安消防隊 隊長 宋善[illegible] 外 隊員一同

延安邑宗路 鮮一印刷社 社長 崔[illegible]

延白郡畜産協會 會長 金[illegible] 理事 姜元[illegible]

延白郡敎育會 會長 金成[illegible]

延安稅務署 署長 尹[illegible] 外 職員一同

延安公立國民學校 校長 [illegible] 外 職員一同